

경기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조달호(연구위원•dhcho@sdi.re.kr)

이춘화(연구원•lch128@sdi.re.kr)

I.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음식점업

○ 서울시의 음식점업은 고용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부문임

- 서울시 음식점업(숙박업을 포함)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이지만 종사자수는 서울지역의 고용에서 8~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이 진행되는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음식점업의 역할은 중요
- 반면에 종사자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지역총생산 기준) 비중이 낮다는 것은 음식점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

〈표 1〉 서울시 음식점업 종사자수 비중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 산업	3,974,457	3,612,150	3,874,597	4,045,537	3,758,459	3,378,615	3,367,652
음식점업	282,115	276,083	294,112	307,894	301,490	274,433	295,272
비중	7.1	7.6	7.6	7.6	8.0	8.1	8.8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산업	3,574,824	3,763,794	3,805,462	3,791,943	3,732,230	3,843,010	3,894,666
음식점업	331,676	360,825	355,274	362,547	354,559	357,843	345,819
비중	9.3	9.6	9.3	9.6	9.5	9.3	8.9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 서울시 지역총생산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전국기준과 서울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역총생산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4년까지 서울 기준 비중이 낮았으나 1995년에 크게 증가한 후부터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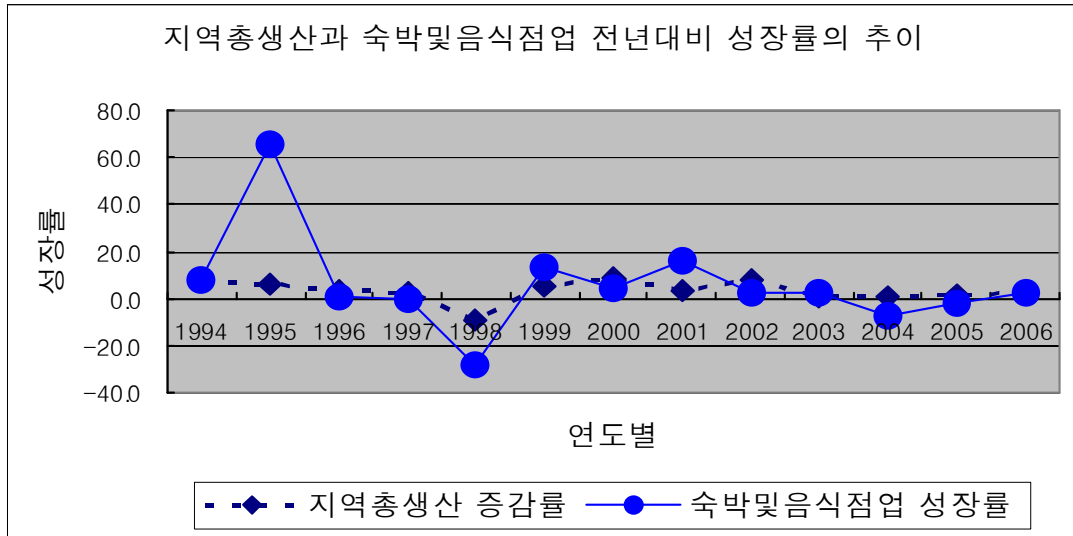
〈표 2〉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부가가치 비중(지역총생산 내 음식점업 비중)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기준	2.6	2.7	2.8	2.7	2.7	2.2	2.5	2.5	2.6	2.6	2.5	2.4	2.3	2.2
서울기준	2.4	2.4	3.8	3.7	3.7	2.9	3.1	3.0	3.3	3.2	3.2	3.0	2.9	2.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II. 음식점업은 경기에 민감

- 음식점업(증감률)의 변동이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 변동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업이 경기에 민감함을 시사
 - 2000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과 숙박 및 음식점업 총생산액 성장률(전년대비)의 상관관계는 0.5606으로 나타났음. 이는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변수 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서울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전년대비 증감률(GRDP 기준)은 그 변동폭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1995년 65.9% 증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는 28.6% 하락, 2001년에는 16.0% 증가)
 - 이는 음식점업에서 소자본 창업이 많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호경기에는 창업을, 불경기에는 휴폐업이 속출하는 경향에 기인
 - 단, 최근(2002년 이후)에는 음식점업의 변동 폭이 줄어드는 등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그림 1〉 지역총생산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년대비 성장률의 추이

〈표 3〉 지역총생산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년대비 성장률의 추이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서울지역 총생산증가율	7.5	5.7	2.9	2.2	-9.2	5.2	8.4	3.3	8.0	0.3	0.8	1.3	2.6
숙박및음식점업 성장률	7.9	65.9	0.5	0.0	-28.6	13.4	4.2	16.0	2.8	2.2	-7.9	-2.2	2.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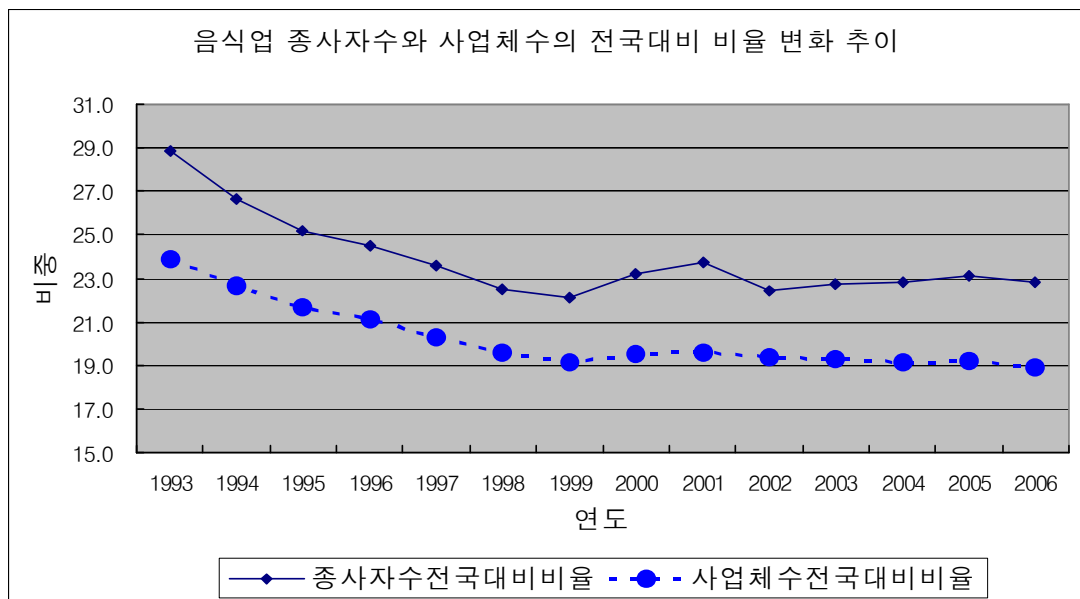
○ 음식점업은 최근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집계(중앙회에 가입한 일반음식점업 회원들에 한함)한데 의하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음식점업 가운데 휴업이 102,429곳, 폐업이 35,385곳에 달함
- 그중 서울시 휴업은 39,237곳(전국의 38.3%), 폐업은 4,614곳(전국의 13.0%)으로 나타남

III. 서울시 음식점업은 대형화 추세

- 서울시 음식점업의 사업체수종사자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임
 - 서울시 음식점업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비중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의 28.8%, 23.9%로부터 2006년의 22.8%, 18.9%로 지난 13년간 각각 6%p, 5%p 감소하였음
 - 특히,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꾸준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서울 음식점 한개 업체당 종사자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아 서울의 음식점 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종사자 수 기준)을 나타냄
 - 서울의 종사자수 비중이 서울의 사업체수 비중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추론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2〉 서울시 음식점업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의 전국대비 비율 추이

〈표 4〉 서울시 음식점업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의 전국대비 비율 추이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종사자수	28.8	26.7	25.2	24.5	23.6	22.5	22.2	23.2	23.7	22.4	22.7	22.8	23.1	22.8
사업체수	23.9	22.7	21.7	21.1	20.3	19.6	19.2	19.5	19.6	19.4	19.3	19.1	19.2	18.9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 서울에서는 음식점업이 개인사업체에서 회사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대형화가 더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음식점업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회사법인이 늘어나고 있음
 -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1993년의 99.8%로부터 2006년에는 97.5%로 하락하였고 회사법인은 0.4%로부터 2.4%까지 상승하였음
 - 종사자수는 개인사업체가 95.9%에서 87.2%로 하락하였고 회사법인은 4.0%로부터 12.6%로 증가하였음
- 음식점업에서 회사법인 형태로의 전환은 경쟁력을 강화가 목적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개인사업체가 회사법인 형태로 전환되면서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고용측면에서는 다소간 부정적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표 5〉 음식점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추이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인사업체	99.6	99.4	99.4	99.4	99.3	99.3	99.2	99.0	98.7	98.5	98.4	98.4	98.0	97.5
회사법인	0.4	0.6	0.6	0.6	0.7	0.7	0.8	1.0	1.3	1.5	1.5	1.6	2.0	2.4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표 6〉 음식점업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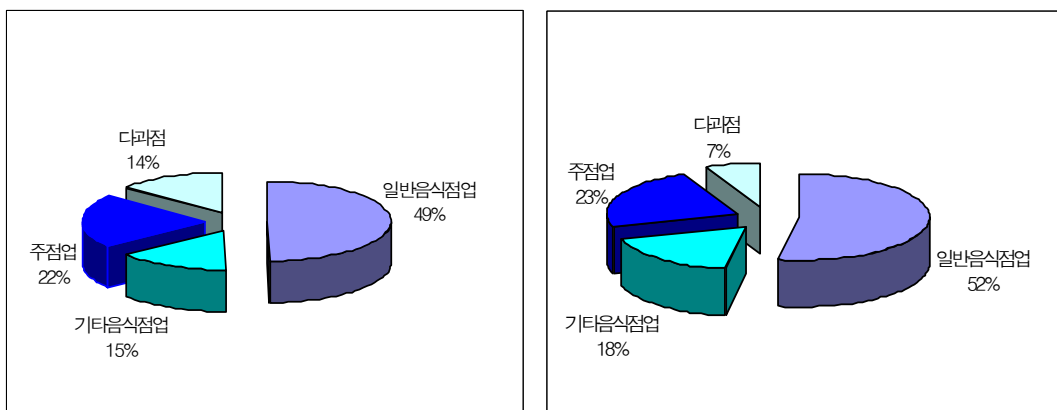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인사업체	95.9	93.8	94.6	95.3	94.5	94.6	93.6	92.6	89.9	91.6	90.0	90.2	88.4	87.2
회사법인	4.0	5.9	5.1	4.6	5.3	5.2	6.2	7.2	9.9	8.2	9.8	9.6	11.4	12.6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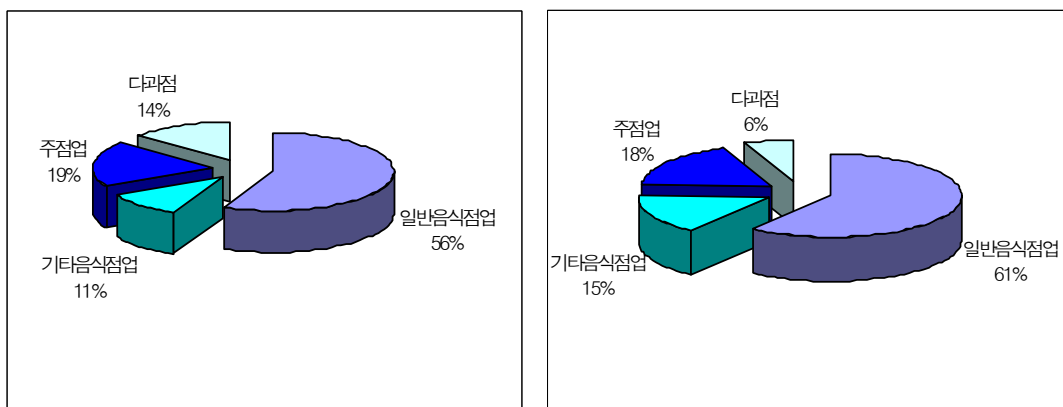
IV. 한식·패스트푸드 늘고 양식·분식 줄어

○ 일반음식점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다과점 비중은 감소

- 음식점업에는 일반음식점, 기타음식점, 주점, 다과점 등이 포함됨
- 일반음식점업과 기타음식점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은 늘어난 반면, 주점업은 비슷한 비중을 유지, 다과점 비중은 감소함
- 일반음식점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1993년의 49%에서 2006년의 52%로 늘어났고, 기타음식점업도 15%에서 18%로 다소 늘어난 반면, 다과점은 1993년의 14%에서 2006년의 7%로 크게 줄었음
- 종사자수 비중은 56%에서 61%로 증가, 기타음식점업은 11%에서 15%로 늘어남. 다과점은 14%에서 6%로 줄었음



〈그림 3〉 음식점업 사업체수 구성의 비교(1993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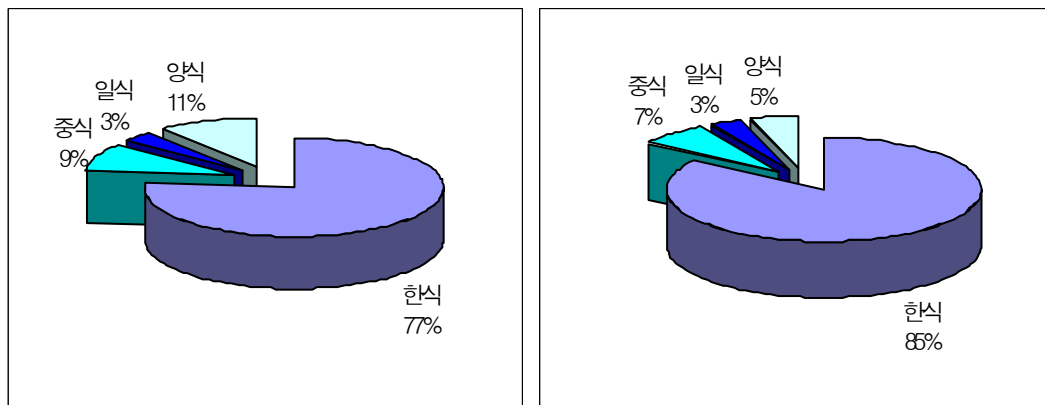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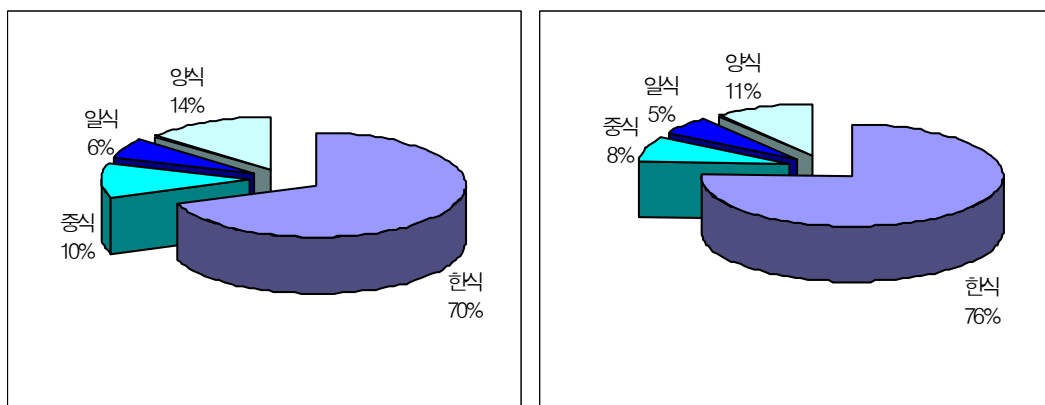
〈그림 4〉 음식점업 종사자수 구성의 비교(1993년, 2006년)

○ 일반 음식점업 중 한식은 증가하고 양식은 감소

- 서울에서는 한식 음식점이 가장 많아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양식, 중식, 일식 음식점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음식점업 사업체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한식은 1993년의 77%로부터 2006년의 85%까지 다소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양식 음식점은 11%에서 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음식점업 가운데서 한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70%로부터 76%로 증가, 양식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14%로부터 11%로 감소



〈그림 5〉 일반 음식점업 사업체수 구성 변화(1993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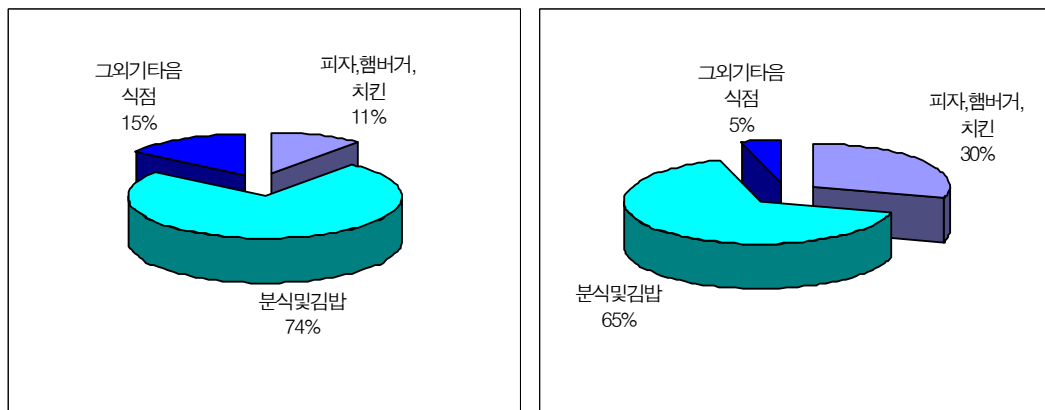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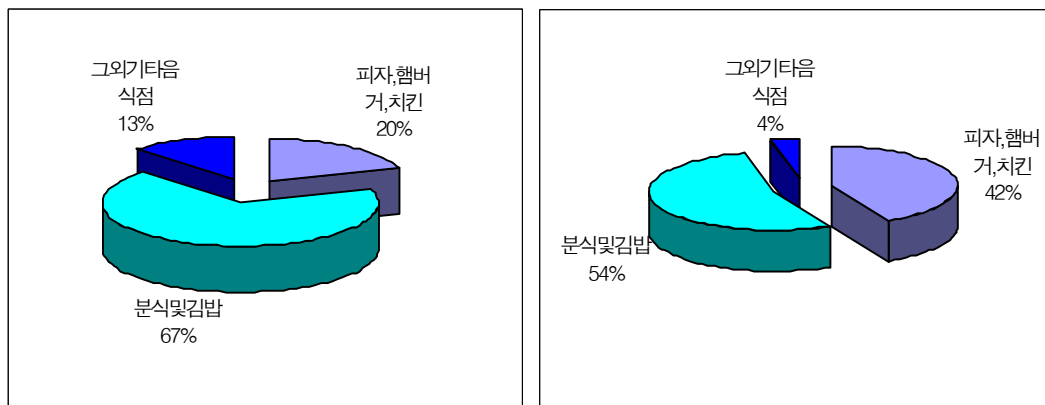
〈그림 6〉 일반 음식점업 종사자수 구성 변화(1993년, 2006년)

○ 분식 대신 패스트 푸드 선호

- 기타 음식점업에서 피자, 햄버거, 치킨 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은 크게 감소하였음
 - 기타 음식점업 사업체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피자, 햄버거, 치킨 전문점의 비중이 1993년의 11%로부터 2006년의 30%로 2배 정도 증가
 - 피자, 햄버거, 치킨 전문점이 증가한 대신,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사업체수는 74%로부터 6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피자, 햄버거, 치킨 전문점 종사자수는 20%로부터 42%로 증가,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종사자수는 67%로부터 54%로 감소함
- 이는 프랜차이즈 음식업 전문점의 증가와 청년층의 기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기타 음식점업 사업체수 구성 변화(1993년, 2006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8〉 기타 음식점업 종사자수 구성 변화(1993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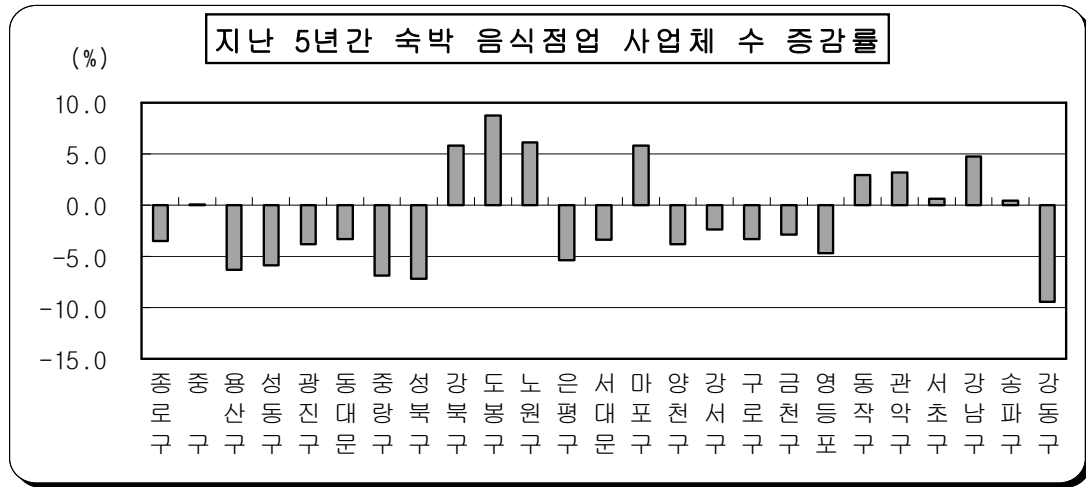
V. 음식점업(숙박포함) 사업체수 감소율 강북이 강남보다 더 커

- 2001년 대비 최근 5년간 서울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 증감률은 1.4% 감소로 나타났음
- 강북지역의 감소율은 1.8%, 강남지역의 감소율은 0.9%로 강북지역의 감소율이 강남지역의 2배로 나타남
 - 강북지역 내에서도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성북구(-7.2%)였으며, 다음은 중랑구(-6.8%), 용산구(-6.3%)로 나타났음
 - 단, 강북 내 일부지역은 음식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봉구(8.8%), 노원구(6.1%), 마포구(5.9%), 강북구(5.8%) 순으로 증가
 - 강남 내에서는 강동구가 9.4%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꼽혔고, 다음은 영등포(-4.7%), 양천구(-3.8%) 순으로 나타남
 -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큰 성장률(4.7%)을 보였고, 다음은 관악구(3.2%), 동작구(3.0%) 순임

〈표 7〉 서울시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증감률

구 분		2001	2005	증감률
서울시		119,200	117,552	-1.4
지역	강북	63,376	62,237	-1.8
	강남	55,824	55,315	-0.9

주: 증감률은 2001년 대비 2005년 사업체 수 증감을 의미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자료조사과

〈그림 9〉 서울시 구별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증감률